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732 / 369-1210 Fax 732 / 369-1140
www.DrDouglasLee.com

Su-Ra Catering (주)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어진 풍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LG Pharmacy
LG ♥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KWIK
퀵 모기지
주택융자, 상용건물, SBA융자
타은행에서 융자 거부된 분 상담
Gabriel S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c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지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감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B&B Auto Repair
Complete Auto Repair & Body Work
Lic. #22086
NJ State Inspection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프린스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08542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REALTOR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Central Funeral Home
증앙 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MSOME AUTO 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Jeep CHEVROLET
모든 차종, 친절하게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중
제 12주일

2021년
6월 20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이번 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욥기 38,1.8-11

 # 화답송 시편107(106),23-24.25-26.28-29.30-31(◎ 1참조)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5,14-17

 # 복음환호송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마르코 4,35-41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6/21/21	창세기 12,1-9	마태오 7,1-5
화요일 06/22/21	창세기 13,2.5-18	마태오 7,6.12-14
수요일 06/23/21	창세기 15,1-12.17-18	마태오 7,15-20
목요일 06/24/21	이사야서 49,1-6 / 사도행전 13,22-26	루카 1,57-66.80
금요일 06/25/21	창세기 17,1.9-10.15-22	마태오 8,1-4
토요일 06/26/21	창세기 18,1-15	마태오 8,5-17
일요일 06/27/21	지혜서 1,13-15;2,23-24 사도 바오로의 코린터 2서 8,7-15	마르코 5,21-43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최상우 - 먼로 구역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홍순연(비안나)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최남순 - 박화성(헬레나)
- 추복조(프란치스코) - 가족
- 김준호(베드로) - 가족
- 김성호(루수), 김 엘리자벳, 김영균(요셉) - 가족

생미사 - 봉헌자

-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 서품기념일 축하
  - 피스브릿지 구역, 먼로구역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한상철(빈첸시오) - 박락준(베드로)
- 채희백(바오로) - 피스브릿지 구역
- 이 요한, 이 케이트 - 손영수(유스티노)
- 변서은(클레어) 출생 축하 - 김영필(안토니오) 가족
- 박서진(사무엘 바오로) 견진 축하 - 허 아나스타시아
- 주일학교 첫영성체 어린이들 축하 - 허 아나스타시아

교무금 납부 안내

김진(6-7)	백상헌(6)	하용무(5-6)
이대우(5)	이용문(5)	장문국(1-6)
서경호(6-7)		**합계:$1,350**

감사헌금

김삼식($200)	전옥주($100)
	합계: $30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136명 **합계: $1,583**

공지사항

코로나 관련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 참례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제대 왼편(성가대 맞은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 2차헌금 안내
- 6월 20일: 성당 유틸리티 2차 헌금

 # 이남웅 (스테파노) 주임 신부님 6월 화상 영성강의
- 일시: 6월 26일(토) 저녁 8시-9시 반
- 주제: 예수성심신심 - 하느님 사랑을 배우는 학교
- 강의방법: Zoom 화상 강의(강의 접속링크는 구역장님들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안내
- 1년 구독 비용 : $48 (신청마감 7월 26일까지)
- 구독기간 : 2021년 8월 - 2022년 7월
- 기존 매일미사 책 보다 큰 사이즈인 "대형 매일미사"책 구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사무장 (732-258-5998)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안내
- 일시: 매 주일 미사 후 - 오후 2시까지
- 장소: 친교실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사 후 친교실로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됩니다.

 # 2021년 Bishop's Annual Appeal
- 각 가정에서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이용하여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http://diometuchen.org/BAA
- 2021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5/10까지 약정된 금액은$ 32,950 (목표금액의 94.1%, 123명 참여)입니다.

 # 최정원(레지나) 자매님의 부친 최상우형제님께서 6월 7일 한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미사 후 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 신임 대건회장으로 박락준(베드로) 형제님, 야고보회장으로 김동근(사도요한) 형제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미사 (주파수 FM 100.1MHz)

라디오 방송 미사에 참여하실 분은 성당 옆 큰 주차장의 지정된 지역에 주차 후 FM 100.1MHz로 맞추시고 미사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미사 후 기다리시면 신부님께서 직접 차량을 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 해주십니다.

<마르코 복음> 4,35-41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 앙 상 식

성무일도가 뭔가요? 저도 해도 되나요?

성무일도는 '해도 되는' 선택의 정도가 아니라, 세례받은 신자 모두가 성무일도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바치도록 교회가 공적인 가르침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을 먼저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전례 헌장 100항 참조). 성무일도가 무엇이길래, 신자들은 모두 성무일도를 바치라고 교회가 그토록 강력히 권고할까요?

성무일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사 때 정성껏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그때 그때 바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정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루카 21,36)고 하셨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세 번 기도를 바쳤던 예수님 시대 유다인들 의 전통에 더하여, 밤 기도, 새벽 기도 등을 추가해, 하루에 8번 기도를 바치는 전통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기도 들에는 기도 내용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편'을 중심으로 성경 등을 덧붙여 읽으며 기도했습니 다. 시편을 기도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계실 때, 그 시대 유다인들의 전통이 그러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도 전통을 따르셨을 테니까요.

이렇게 시편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도 내용에 맞춰, 정해진 횟수에 따라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봉헌하는 기도가 바로 '성무일도'입니다.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4주에 걸쳐 시편 150편의 대부분을 한 번 순환하는 구성을 갖추었고, 하루 최대 7번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 안에서 교우들이 성무일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가령, 하루 세 번 성당에서 종을 치면, 삼종기도를 바치죠? 이 종소리는 원래 시간에 맞춰 성무일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알람이었습니다. 이때 바치는 삼종기도는 성무일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낸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몰라 성무일도를 바치지 못했던 신자들이 성무일도 대신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고안해 낸 방법이 바로 묵주기도인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678항 참조).

영성체를 여러 번 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을 더 많이 모시면, 더 많은 은총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체를 통한 은총은 성체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체 축성에 사용했던 제병이 더 컸다고 은총을 더 받는 것도 아니며, 여러 성체를 한꺼번에 모셨다고 받는 은총이 더 크지도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교우들에게 영성체를 권장 하면서도, 미신적인 믿음으로 영성체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법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영성체의 최대 횟수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최대 2회까지 입니다(교회법 917조 참조). 물론, 임종을 앞둔 분들은 다시 영성체 하셔서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법 921조 참조).

무작정 영성체 횟수만 늘어난다고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당 교회법 조문은 알려줍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만남 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